

한중경제포럼

제21-05호 2021년 12월 9일

중국의 2021년 거시경제 회고 및 2022년 경제 전망

2021년 제5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중국의 2021년 거시경제 회고 및 2022년 경제 전망
2. 일 시: 2021. 11. 29(월) 16:00~18:00
3. 발표자: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탕뤼뤼(汤铎铎) 주임

1. 2021년 중국 거시경제 개황

- 2021년 1분기와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20년 이후의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3분기에는 회복세가 부진하고 성장률이 크게 둔화됨.
 - 2021년 1, 2, 3분기의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8.3%, 7.9%, 4.9%이고 누적 전년동기대비는 각각 18.3%, 12.7%, 9.8%임.
 - 실제 GDP를 전망치¹⁾와 비교하는 것과 실제 GDP가 추세치를 벗어난 정도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올해 1, 2, 3분기 성장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실제 GDP를 전망치와 비교한 결과 2021년 1분기와 2분기의 전망치대비 실제 GDP는 각각 89.1%, 88.5%였으나 3분기에 69.4%로 대폭 하락함.
 -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20년 1분기 실제 GDP는 전망치에 비해 90% 이하로 떨어졌고 그 이후 몇 분기에 걸

1) 여기서 말하는 전망치는 발표자가 올해 2월에 중국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었고 기타 국내외 환경이 상대적으로 호전되었던 당시 상황을 근거로 하여 2021년 분기별 중국 GDP 성장률에 대해 낙관적으로 예측한 수치임.

쳐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긴 했으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3분기에는 회복세가 꺾임(그림2 참조).

표 1. 2021년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 비교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년동기대비	전망치	20.5%	8.9%	7.1%	5.5%
	실제치	18.3%	7.9%	4.9%	/
	실제치/전망치	89.1%	88.5%	69.4%	/
전년동기대비 (누적)	전망치	20.5%	14.1%	11.5%	9.8%
	실제치	18.30%	12.70%	9.81%	/
	실제치/전망치	89.1%	89.8%	85.0%	/

그림 1. 2021년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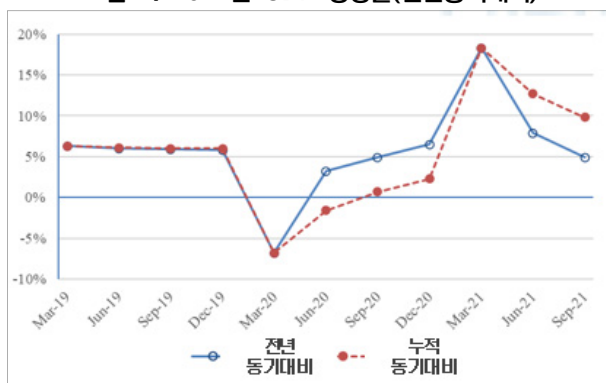


그림 2. 2021년 GDP 추세치 대비 실제 GDP



□ 중국의 물가지수는 2021년 3월부터 PPI(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가 대폭 상승하였고 수출물가지수는 2021년 8월부터 상승하였으며 CPI(소비자물가지수)는 현재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PPI는 10%를 넘어 15%에 근접하고 있으나 CPI는 2%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 인민은행은 물가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PPI보다 CPI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기준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 연준도 CPI나 PCE(개인소비지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현재 CPI의 변동이 미미하므로 중국 인민은행은 정책적으로 크게 간섭하지 않는 상황임.
- 중국의 PPI는 수입가격지수나 수출가격지수와 관련도가 매우 높는데 최근 수입가격지수와 수출가격지수가 모두 상승함에 따라 PPI도 연동하여 대폭 상승함.
 - 올해는 수입가격지수가 먼저 상승하고 대략 6개월 후에 수출가격지수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로부터 판단할 때 현재 중국 PPI의 상승은 해외유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중국의 PPI와 CPI 추이 (200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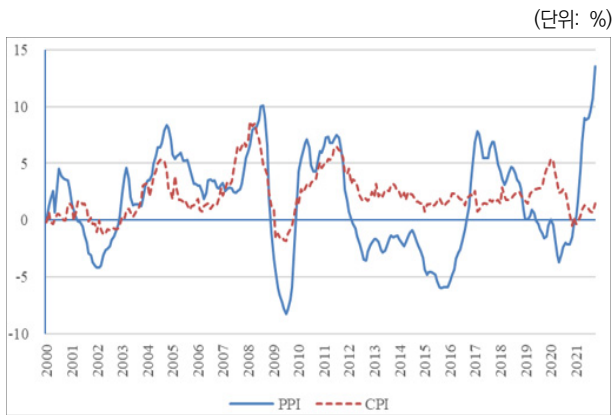


그림 4. 중국의 PPI, 수출가격지수, 수입가격지수 추이 (200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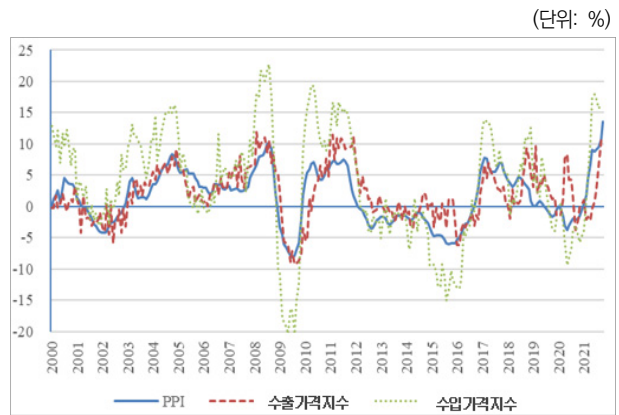


그림 5. 중국의 PPI, 수출가격지수, 수입가격지수 추이 (20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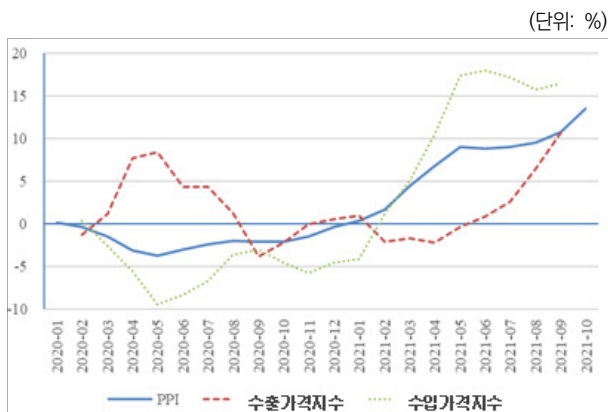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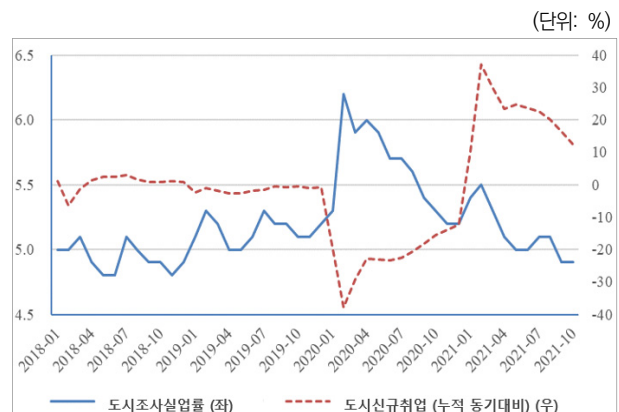


그림 6.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과 도시신규취업 (누적 동기대비)



□ 중국의 올해 고용실적은 아직까지 크게 악화되지 않았으나, 향후 정체(滞后效应)될 가능성이 있음(그림 6 참고).

- 올해 3분기의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낮은 상황이나 실업률은 아직 크게 상승하지는 않음.
- 도시 신규취업자수의 경우 2020년 이전에는 동기대비(누적기준) 큰 변동이 없었는데 2020년에는 대폭 하락했다가 그 후 다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런 큰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라고 봐야 함.
- 중국은 취업률과 실업률을 조사함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방법과 경험이 부족하고 관련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공신력 있게 집계하는데 매우 취약함. 중국의 전반적인 고용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국은 과거에 실업자가 자원해서 신고·등록하는 도시등록실업률을 통계·발표해 왔음. 그러나 이는 실물경제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은 도시조사실업률이라는 새로운 통계기준을 이용하여 집계하고 있음. 후자가 전자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더 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소비 회복세가 느린 상황으로 현재는 추세치의 92% 수준임. 반면에 투자는 추세치의 97%의 수준까지 회복되었음. 대외무역 증가율은 전망치를 상회하며 계속해서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

- [소비] 중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소비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으며, 특히 요식업 부문의 회복이 느린 상황임.
- [투자] 작년에 중국의 부동산개발과 인프라건설 항목의 투자가 제조업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반면에 올해에는 제조업의 투자가 빠르게 회복되고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 투자는 하락했음.

그림 7.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소비 회복세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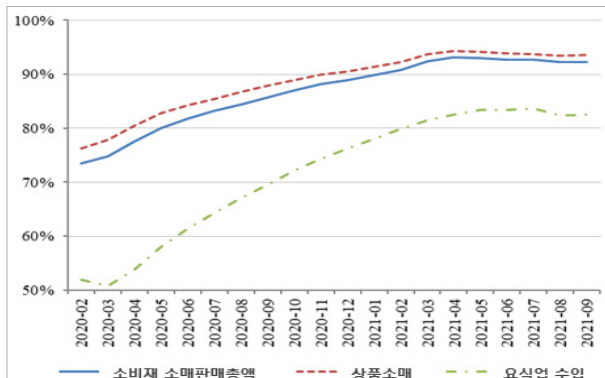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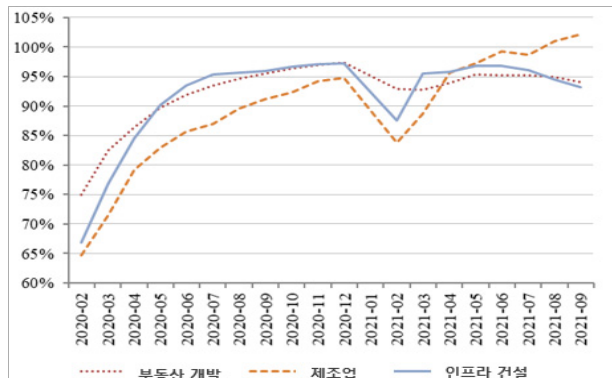


그림 8.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투자 회복세 추이

(단위: %)



- [무역] 중국의 대외무역 증가율은 전망치를 상회하며 계속해서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의 대외무역은 코로나19 이전에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기저수가 이미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기저효과가 선명하지 않았음.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을 빠르게 통제하면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대폭 성장함.
- 중국 정부와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국 대외무역의 증가율 추세에 대해 단기적인 효과일 것으로 평가했지만 아직까지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9.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추이(2000~21.9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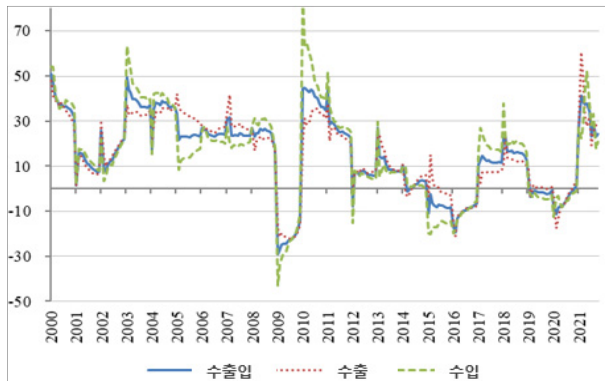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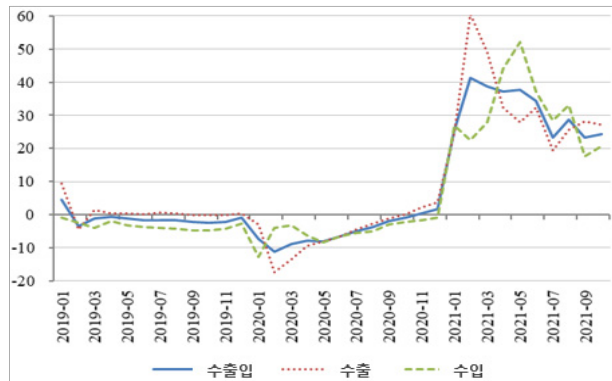


그림 10. 최근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추이(2019~21.9월)

(단위: %)



2. 2021년 중국 거시경제 정책 회고

- 2021년 중국은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하며 금리와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통화, 신용대출, 사회용자총량이 모두 적절하게 완화됨. 동시에 인민은행은 구조적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이 제시하는 금리밴드의 폭은 비교적 넓은 편임. 올해 7월 15일에 기준율을 한차례 인하한 것 외에 다른 큰 조치가 없었음.
 - 중국은 현재 금리정책을 개혁하고 있는데, 금리 시장화와 금리밴드의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임. 그중 금리밴드의 경우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인민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금리와 초과 지급준비금 이자율임.
 - M2, 위안화 대출, 사회용자총량 등 양적 지표도 모두 크게 변동하지 않음.
 -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농촌진흥이 여전히 중점 업무임.
 - 거시 레버리지 비율이 안정적으로 감소되었음.
 - 인민은행에서 발표한 2021년 2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보고서>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의 주요 통화정책 방향은 △대수만관(大水漫灌)²⁾을 하지 않는 것 △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 △통화 총괄 관리 등이 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2021년 3분기 보고서에서는 상기 내용을 삭제함.

2) 대수만관은 지나친 통화완화 정책을 뜻함.

그림 11. 중국의 금리와 환율의 변화 추이 (2015~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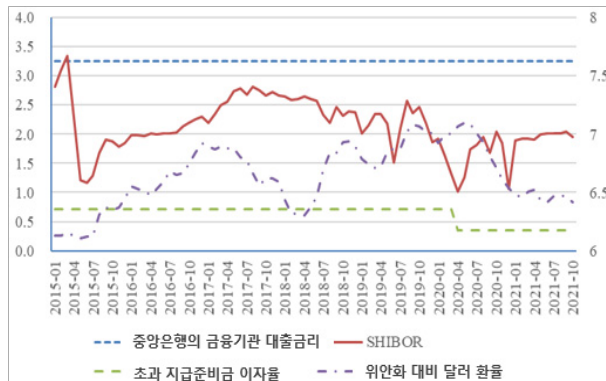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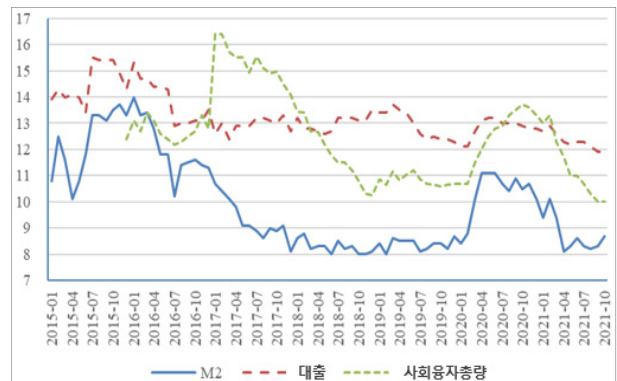


그림 12. 중국의 주요 통화지표 변화 추이 (2015~21년)
(단위: %)



□ 중국 정부는 2021년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 재정 적자율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신규발행 규모 한도 등을 시장 전망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확정했지만 실제 실행한 재정정책은 다소 억제되었음.

- 중국의 재정정책은 올해에도 여전히 "3개 보장(三保)"등 구조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3개 보장은 기본민생, 임금, 운영의 보장을 뜻함.
- 올해 10월 말까지 재정지출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지 못하여 "재정후치(财政后置)"³⁾ 특징이 두드러짐.
- 일반 공공재정과 정부기금 두 항목 모두 "수입이 초과되고 지출이 적은" 결과를 보임.
-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가 재정정책 운용의 공간을 제약함.
 - 재정부가 발표한 1~10월 재정수지 현황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신규 채권발행 규모는 3조 5,130억 위안이며 그중 특별채권 발행규모는 2조 7,578억 위안으로 발행목표의 76% 수준에 불과함.

그림 13. 중국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의 변화 추이(2015~21년)
(단위: %)



3) 재정후치는 재정지출 진도가 처지는 현상을 의미함.

- 올해 중국 정부는 양호한 경제회복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사교육, 에너지 등과 관련한 산업정책을 다수 발표함.
 - 7월 23일,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등 8개 부처는 합동으로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질서 정비와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持续整治规范房地产市场秩序的通知)>를 발표하여 △부동산 개발 △주택매매 △주택 임대 △주택관리서비스 분야에서의 위법행위를 단속함으로써 대중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향후 약 3년 내에 부동산시장 질서를 뚜렷하게 호전시킬 것을 강조함.
 - 恒大(恒大) 그룹을 비롯하여 많은 중국의 부동산기업들이 이 규제로 인해 기업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7월 24일, 중공중앙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의무교육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의 진일보 경감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减轻义务教育阶段学生作业负担和校外培训负担的意见)>을 발표함.
 -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자본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쳐 미국 증시에 상장한 교육 분야를 비롯한 많은 중국 기업들의 주가하락을 야기함.
 - 발개위(发改委)는 8월 17일과 9월 16일에 <2021년 상반기 각 지역 에너지소비 '이중통제' 목표 달성 현황표(2021年上半年各地区能耗双控目标完成情况晴雨表, 이하 '목표 달성 현황표')>와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이중통제제도 완비 방안(完善能源消费强度和总量双控制度方案)>을 발표하고, 에너지 고(高)소비 및 탄소 고(高)배출 사업에 대해 통제할 것을 요구함.
 - '목표 달성 현황표'는 각 성·직할시·자치구 등 지역(省)별 에너지소비 '이중통제' 목표 달성 현황에 대해 만약 달성했으면 초록색, 못했으면 빨간색, 중간 수준이면 노란색으로 표시했음. 이런 직관적인 관리방식은 지방정부에 아주 큰 압박을 조성하게 됨.
 - 지난 9월에 일부 지역에서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부 지방정부가 발개위의 통제와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전기 사용 제한 및 전기 공급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발생한 현상임. 전력난 문제의 본질은 중국의 석탄이나 전기의 부족이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의 일종의 힘겨루기라고 볼 수 있음.

3. 2021년 기타 주요 경제 충격에 대한 회고

-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중국 국내에서 여전히 간헐적·분산적으로 확산되면서 5~6월부터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남. 이와 동시에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하였음. 이러한 코로나19 충격의 장기화는 중국 경제에 비교적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생산방식이나 소비습관 등 많은 측면에서 항구적인 영향을 미침.
 - 온라인 근무, 온라인 소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향후에는 부분적으로 원래의 오프라인 방식을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도 있음.

◦ 요식업 관련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는데, 만일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다시는 추세치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는 의료기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활용과 R&D를 일정 부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

그림 14. 2021년 중국의 코로나19 확진 추이 (4~11월)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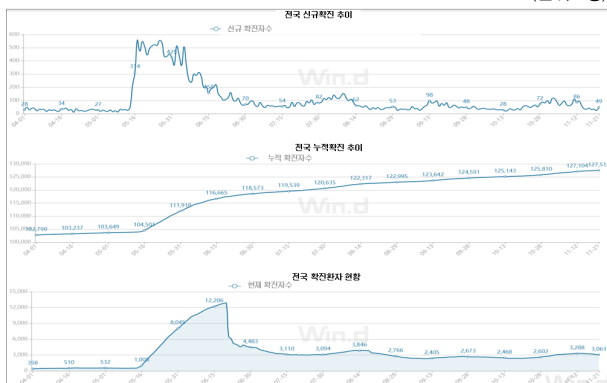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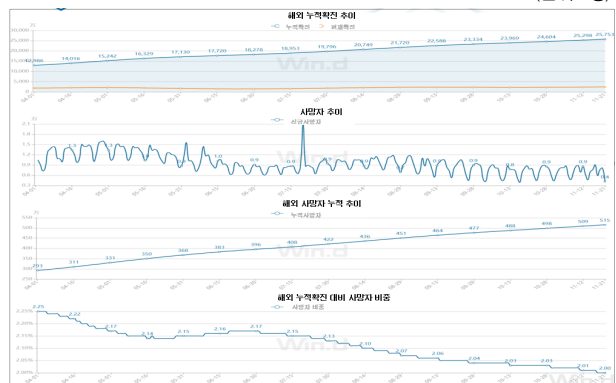


그림 15. 2021년 해외 코로나19 확진 추이 (4~11월) (단위: 명)



□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는 중국 경제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 반도체 칩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외부 수요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해 중국의 산업구조가 왜곡되거나 심지어 무질서한 경쟁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음.

- 최근 글로벌 주요 원자재 가격의 파동이 심한 상황인데, 이는 제조업 기업에 대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제조대국인 중국이 큰 타격을 입게 됨.

그림 16. 글로벌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화 추이 (2002~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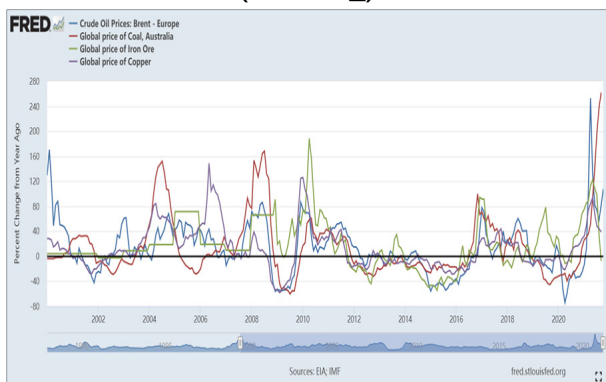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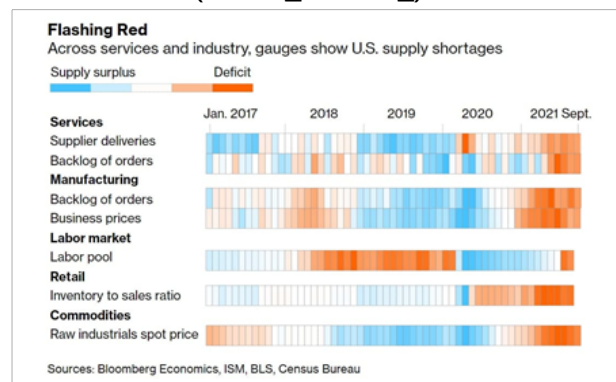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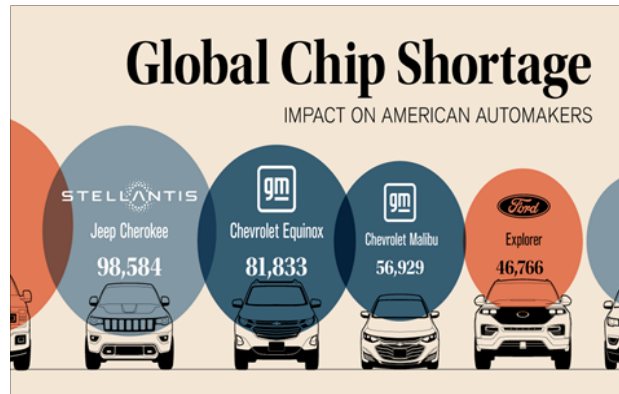


그림 17. 미국의 산업과 서비스의 공급 부족 현황 (2017.1월~2021.7월)



- 또한 최근 반도체 칩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림 18.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이 자동차 제조기업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의 충격으로 해외 일부 제조업 공급망에 병목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로 이전되었던 저급제품 제조 업체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남. 이런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산업배치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중국의 수출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영역에서는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대폭 상승하고 △저급적인 영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동일한 상품을 생산함으로 인해 무질서한 경쟁이 조성되어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기업이 손해를 입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남.

□ 미·중 관계가 중국의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충격 요인이 될 수 있음.

-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미·중 관계가 예전보다 다소 호전되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미·중 관계는 여전히 중국 경제가 직면하게 될 주요한 충격 요인임.
- 올해 미국의 CPI와 PCE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지금까지 연속 5~6개월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미국 금융당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고 내년에는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시장과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
- 미 연준은 지난 30여년간 유지해 오던 통화정책 기조를 뒤집었음.
-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을 때 미 연준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적인 문제이며, 긴축 능력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 ① 미 연준이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자주성이 있느냐는 것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미 연준의 독립성은 그다지 낙관적인 편이 아니라고 보임.
 - ② 실제로 미국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섰을 때 재정정책이 곧바로 따라올 수 있느냐는 것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 정부부채의 이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 재정은 대형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금을 인상해야 할 것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미국 행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4. 2022년 중국의 거시경제 전망

- 2021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며, 2022년에도 비교적 큰 하방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예측하면 5.5~6.0%의 구간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5.0~5.5%의 성장률 구간이라면 무난한 수준임. 최악의 경우 5.0% 미만으로 둔화될 우려도 있음.
 -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년 중국 CPI의 변화를 전망하기 어려운데 만약 2~3%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유를 가질 수 있음.
- 거시 레버리지 비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경우 거시경제정책은 한층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거시경제정책은 계속해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며,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촉진시켜 국내수요를 확대시키려 할 것임.
- 산업측면에서는 제조업의 발전 전망이 좋고, 신에너지·신형 인프라 건설·기타 첨단기술 산업이 좋은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며, 부동산 등 일부 산업은 정책 리스크를 주의해야 할 것임.
 - 현재 중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제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어 내년에 제조업의 활력이 제고 될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투자는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교육과 부동산 등 산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여전히 정책 리스크를 주의해야 할 것임.
 - 그리고 특히 정책면에서 금융업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질의응답(Q&A):

Q 1.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몇몇 증권사에 문의해 보았는데 대부분 1, 2분기에 하락하고 3, 4분기에 회복하는 추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다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엔 전저후고(前低后高)의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년 초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22년 1분기 중국 경제에 대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A 1.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에 3, 4분기에는 많이 하락했음. 그러므로 기저효과로 볼 때 내년 1, 2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하게 되고 3, 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높게 나타나게 될 것임. 그리고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과거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도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특히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하면 그 효과가 더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함.

Q 2. 오늘 발표 중에 중국 경제가 2022년에 비교적 큰 하방 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2022년 경제성장률이 5.5~6.0%의 구간이 될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이는 중국 국내 증권사들의 예측보다 좀 높은 편임. 이는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의 영향을 감안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A 2.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앞서 말씀드린 5.5~6.0% 구간의 전망치는 매우 낙관적인 시각에서 예측한 것임. 내년에 불확실한 요인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내년 중국 경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며, 경제성장률이 5% 미만으로 내려갈 확률도 크다고 생각함.

Q 3. 최근에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고 현재 중국은 강력한 방역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런 방역조치는 중국 경제의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방역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3. 최근에 나타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움. 언론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불분명한 상황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의 방역체제를 실행하는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엄격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음. 사실 이런 방역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미리 추측하기는 어려움. 현재 이미 발생한 결과들로 볼 때 개인적으로 중국의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 대규모 확산을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함. 물론 중국이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면서 서비스업과 중소·영세기업이 막대한 충격을 입고 있고 이는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만약에 중국이 다른 나라들처럼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바이러스가 확산되도록 방치한다면 중국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며,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대대적으로 증가할 것임. 이런 이유때문에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실시했다고 가정한다 해도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할 수 없음.

Q 4. 오늘 발표 중에 올해 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4분기 경제성장률을 3%대로 예측한 내용도 있었음. 그리고 올해 중국의 거시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이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내년 중국의 거시정책 기조는 어떠한지? 내년에도 계속해서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 갈 것인지, 금리나 기준율 등에 대한 조정은 언제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최근에 제가 본 자료에는 중국 재정정책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재정적자율을 3%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했음. 재정적자율을 포함해서 내년 재정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함.

A 4. 올해 연초에 4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이 5.5% 수준이었음. 그러나 3분기에 이미 4.9%로 떨어졌기 때문에 4분기 성장률이 4.9% 미만으로, 5.5%에 비해 대폭 하락할 확률이 아주 높음. 4분기가 아직 한달 가량 남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3%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음. 내년 중국 재정정책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며 올해 실제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와는 달리 내년에는 확실하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함. 중국 재정상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며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3%, 2.5%의 재정적자율은 사실상 중국 재정의 정확한 상황을 보여주지 못함. 이런 방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복합적자율에 대해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중국 재정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재정을 논함에 있어서 보통 네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하는데 각각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적자율을 통계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내년에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펼칠 것임. 경제성장이 부진하여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개발의 투자가 증가한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임. 통화정책 면에서는 일부 긴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임. 현재 CPI 상승폭이 크지 않고 올해 3, 4분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여러 상황을 통합적으로 볼 때 내년에 통화긴축을 실행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보다 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함. 물론 이런 정책기조 전망은 모두 현재 국면이 유지되는 정상적인 기준에서 예측한 것이며, 앞으로 큰 충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음.

Q 5. 오늘 발표 중에 내년에 중국경제가 직면하게 될 주요 충격요인으로 코로나19, 공급망 문제, 미중 관계 및 미국 인플레이션 추이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요인들은 모두 외부적인 요인들이라고 생각함.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부적인 문제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내년으로 다가온 중국 정권교체의 불확실성, 총인구 감소(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문제들의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A 5. 아주 좋은 질문임. 저의 발표 내용이 외부요인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중국 자체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재 중국경제를 논하는 국내의 많은 사람들한테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중국 자체의 문제들이 대부분 뒤로 가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거나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임.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중국정부는 미·중 무역마찰과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에 이미 충분한 내부적 논의를 진행하였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할 수 없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중국 내부의 문제들이 단기간 내 중국 거시경제에 대해 큰 영향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 원인으로는 첫째, 중국

사회는 현재 전반적으로 인민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충족되고 있고 생활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단계임.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선명하진 않지만 3, 4선 도시에 가 보면 사람들의 의식주 등 많은 수요가 충족되고 있는 추세가 매우 선명함.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중국 사회에 축적된 모순이 비교적 적고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쉬우며 현재 중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함. 둘째, 중국 정부는 아주 많은 정치적·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거시정책 측면에서 국제비교를 해본다면 중국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기타 나라들과 큰 차이가 있으며, 훨씬 막강한 정부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서방국가들과 달리 중국은 수많은 국유기업을 갖고 있으며 중앙부처인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가 전문적으로 중앙기업과 지방의 국유기업들을 관리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중국정부가 경제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5~10년 내에는 중국 경제가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